

## 13. 대인 섹스

### Interpersonal Sex

이번 장도 지난 장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섹스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저런 성행위를 홀로 할 뿐 아니라, 몇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도 행하고 있다. 다른 청년들처럼, 청소년들도 사춘기때 오는 성적 성숙의 한 부분으로 성적능력을 표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러한 표출은 그들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 앞으로 두 장에 걸쳐 청소년들의 가장 흔한 성행위와 성경이 이에 대해 말하는 바와 크리스천들은 이에 대해 무엇이러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애무 Petting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으로 데이팅은 청소년기가 생겨나면서 고안된 것이다. 청소년기가 생기기 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고르고 결혼 준비를 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알고 있기 때문이며, 부모는 오랜 결혼생활을 통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이 책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는 결혼을 주선하고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의 주선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아직도 전 세계 60%의 십대에게 행해지는 방법이다.

청소년기가 생긴 후로 결혼 배우자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돌아갔다. 결혼할 수 없는 초창기 청소년들은 배우자를 고르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개발해야 했다. 함께 재미있는 일을 즐기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데이트가 생겨났고, 1920 년대에 이르면 페팅(petting 성적인 애무: 역자주)이 데이트 관계의 일부로 허용되고 기대되었다. 20 세기 중반에 알프레드 킨지(Alfred Kinsey)와 그의 동료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40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통계를 통해 미국 여성들의 성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애무와 혼전섹스에 대한 태도만큼 큰 변화가 있는 영역이 없음을 주목했다. 가장 큰 변화는 20 세기 첫 10 년에 태어난 세대 가운데 있었는데 1950 년대까지 애무가 점점 더 확산되었다. 그것이 성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 확실한 사회적 요인의 경우였다는 것을 그들은 지적했다.

성적 애무란 실제 성교는 하지 않으면서 신체 접촉을 통해 서로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애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된 정의는 없지만 그런 정의들도 보통은 애무가 허리 위인가 아래인가 또는 옷 안인가 밖인가 정도의 구분이다. 20 세기 전반부 동안에는 여자의 1/3, 남자의 2/3 만이 옷 안에서 몸 어딘가를 애무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1975 년에 이르면 남녀의 3/4 이 그런 애무를 경험했다고 보고 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지는 애무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의 애무행위에 관해서는 한 구절이 나온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창세기 26:8 킹제임스). 너무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 400 년 전의 번역가들은 그것을 “즐겁게 놀므로”라고 번역하였다. 대부분 현대 번역은 그것을 (애무행위를 뜻하는: 역자주) “caressing” 또는 “petting”으로 번역했다.

오늘 당신이 창밖을 보고 남자와 여자가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에게 든 첫 번째 생각은 그들이 결혼한 부부일 거라는 생각일것인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반응은 그랬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네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창세기 26:9 킹제임스).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삭이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애무를 즐기고 있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널리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애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제시한다. 루이스 스미즈(Lewis Smedes)는 그의 책 “크리스천을 위한 성(*Sex for Christians*)”에서, “애무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 정밀하게 조율된 방법이 될 수 있다... 섹스의 의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느끼는지 발견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절제와 훈련이 요구되는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와 친밀감을 향한 모험이다”라고 말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청소년들에게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스미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절제와 훈련이 요구되는”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라. 보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통은 절제도 되지 않는다.

다른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모든 신체 접촉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허버트 마일즈(Herbert Miles)는 그의 책 “결혼 전 성에 대한 이해(*Sexual Understanding before Marriage*)”에서 “젊은이들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애무행위를 구별하려고 애를 쓴다. 손을 잡는 것과 ‘비교적 자극적이지 않은 키스와 포옹’... 만일 우리가 분명하게 진실을 직시하려 한다면—진실은 반드시 직시되어야 한다—자극적이지 않은 키스와 포옹 따윈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손을 잡는 것은 괜찮지만 키스, 포옹, 더 친밀한 어떤 것도 안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 다른 문화 현상들 Other Cultural Phenomena

제 3 문화 자녀(TCKs)로서 여러분들은 각 나라 문화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화가 다양할 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른 지역마다 엄청 다를 수 있다. 인디애나주 농장에서 자란 소년이 캘리포니아주 교외에서 자란 소녀의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문화에서 올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들도 지역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현재 타문화권에서와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예들이 다음에 있다.

- **몸짓과 다른 비언어적 행동 (Gestures and other nonverbal behavior).** 다른 문화로 옮겨갈 때, 손짓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듣게 된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OK”를 뜻하는 손모양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성적으로 음란한 표시가 될 수 있다. 눈을 쳐다보거나 안 쳐다보는 것, 심지어 눈썹을 치켜 뜨는 것도 문화마다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 **옷차림 (Clothing).** 옷을 입는 방식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모든 문화에 있다. 한 문화에서 안전한 옷차림이 다른 문화에서는 성적으로 음란한 표시가 될 수 있다. 나라마다 몸을 가리는 부분도 다 다르다.
- **팔찌 (Bracelets).** 옷에 붙이는 장신구로 매춘을 표시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80년대 유행한 “젤리 팔찌”가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고급 옷가게로부터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이 팔찌를 미국 어떤 지역들에서는 그 의미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 “섹스팔찌” 혹은 “스냅팔찌” 라고 부른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자가 팔찌의 특정 색깔에 따라 어떤 종류의 성행위를 원하는가를 표시하고 남자가 그 팔찌를 “갑자기 툭 끊으면(snap)” (끊어버리면, break) 그도 마찬가지로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춤 (Dancing).** 많은 곳에서 고등 학생들의 춤은 공공연하게 성적 의미를 표현한다. 여기 가까운 학교의 춤에 관한 지침을 인용한다. “금지된 춤의 종류는 남자가 여자 뒤에 서서 성행위를 흉내 내며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춤이다. 서로 마주 서서 몸을 밀착하고 성행위를 흉내내는 것과 줄지어 서서 서로에게 밀착하고 집단 성교를 흉내 내는 것도 포함된다.”
- **“데이트 하기(Dating).”** 오늘날 십대들은 이전 세대가 했던 “데이트”는 하지 않지만, 그들도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을 갖고 있다. 그 한 방법이 “행아웃(hanging out)”이라는 것이다. 총각이 처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계획을 짜고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그들은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무언가를 함께 한다. 특별히 구애를 하거나 결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훅업 (hooking up)”이다. 이것은 이제 막 만났고 다시 만날 기대조차 없을 수도 있는 사람과 섹스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두 사람 모두 “감정에 잡히지”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성교 Intercourse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애무가 행해질 때 그것을 흔히 “전희(foreplay)”라고 부른다. 그것은 전희가 자연스럽게 섹스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로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고는 섹스까지 안 간다는 생각은 논리상 맞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게 끝나는 일은 없다.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섹스행위 전에 멈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이어서 깊은 애무를 나누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조만간 섹스하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 1965 년 이전의 미국에서는 10% 정도의 여자와 25% 정도의 남자가 고등학교 졸업전에 성경험을 했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에는 25%의 여자와 55%의 남자가 성경험을 했다. (캐서린 칠만[Catherine Chilman], 1980, Adolescent Sexuality in a Changing American Society[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청년의 성], 미보건교육복지국, 출판 no.80-1426)
- 1973 년까지는 약 35%의 여자와 35%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경험을 했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여자의 65%, 남자의 85% 정도가 성을 경험했다. (칠만 1980)
- 2002 년에는 약 70%의 여자 그리고 60%의 남자가 18 살이 될 때까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성경험을 했다. 22 살에서 24 살이 될 때까지는(보통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 약 90%의 남녀가 성교의 경험을 했다. 이 수치는 질병통제센터의 국립건강통계센터에 의해 수집되었고 2005 년 9 월에 발표되었는데 <http://www.cdc.gov/nchs/products/pubs/pubd/ad/361-370/ad362.htm> 에서 볼 수 있다.
- *Christianity Today* 지의 2005 년 5 월 커버 스토리는 1990 년대의 독신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세 개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3 가 성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 여론조사가 앞의 세 케이스같은 일반 대중이 아닌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했음에 주목하라)

예상하다시피 성경시대에는 십대에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섹스나 결혼하지 않은 어른 (청년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 그러나 몇 개 구절은 있다. 구약에서 요셉이 결혼하지 않은 십대 TCK 였을 때 (일을 시작할 때 17 살이었다), 그의 보스의 아내가 그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그는 “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대답했다.(창세기 39:9 KJV) 유혹이 한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복해서 그녀와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했고 그는 거절했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지혜롭게 피했다. 어느 날 그 집에 그들만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의 겔옷을 잡기까지 하며 함께 침대로 가자고 요구했지만 그는 기발하게 그 겔옷에서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쳤다.

신약시대의 TCK 인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독신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지니라”(고린도 전서 7:2 KJV)고 했다.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을 권했다. “음행”이란 단어는 현대 번역본에서는 보통 “불의”로 번역되는 데 그 말은 여러가지 불법적인 성적 행동들을 언급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성관계를 언급하는 것이다.

바울은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데살로니가전서 4:3 KJV). 그는 그들에게 거룩해야 한다,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절제를 배우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아내를 얻거나 자기 아내와 사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 동성애 Homosexual Behavior

실제 동성애 행위에 대한 논란보다 동성애 자체에 대한 논란이 더 많다. 소수의 청년들만이 동성애를 그것도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하고 있고 동성애를 라이프스타일로 사는 사람은 그 보다 훨씬 적다 (여자는 100 명중 한 명, 남자는 100 명중 두 명 정도). 목소리를 높이는 동성애 운동가들은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의 십대들은 연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보다 동성애가 더 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여섯 구절 정도에서 동성애에 대해 말한다. 동성애는 구약(레위기 18:22 과 20:13)과 신약(특히 고린도전서 6:9)의 성에 관해 말하는 주요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남녀 모두의 동성애를 언급한 구절은 로마서 1:26-27 이다.

불행하게도 모든 제 3 문화 자녀들(TCKs)이 성에 대해 요셉과 바울처럼 순결하지는 않다. 롯은 우르에서 태어난 TCK 였지만 아버지가 죽은 후 할아버지(데라)와 삼촌 아브라함과 살았으며 곧 온 가족이 하란에 정착하여 거기서 몇 년의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할아버지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나라와 문화를 떠났고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으로, 그리고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부유해져서 땅이 그들 모두를 먹이지 못하므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디서 살 지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다. 롯은 소돔 근처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 살기로 했다 그리고 곧 소돔 시내로 옮겨갔다 (창세기 13:12).

어느 날 저녁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을 먹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하였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시의 젊고 늙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손님들을 내보내라 요구하며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했다 (동성애가 때로는 소도미[sodomy]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롯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대신 그들에게 두 딸을 내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 (창세기 19). 롯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비록 아브라함에게서 자라긴 했지만 죄가 많은 곳 근처에서 살기를 택했고 나중에는 그 안으로 이사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곳의 가치관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도 한다.

## 성폭력 Sexual Abuse

때로 TCK 들이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롯의 딸들도 TCK 들이었다. 그들은 롯과 아브라함이 가나안과 이집트를 오갈 때 그들 성장기의 몇 년을 보냈을 지도 모른다. 설사 롯이 소돔에 정착할 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집안에서의 한 문화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또다른 소돔의 문화가 있는 환경속에서 살았다. 매일 이런 사람들과 살면서 보고 듣는 것에 롯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베드로후서 2:8). 그러나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이 서서히 그의 가치관이 되었다. 롯의 딸들은 그들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에 의한 성폭행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주된 요인은 그 원주민들은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TCK 들도 때로 원주민들에게 성폭력의 희생물이 된다.

성관계는 때로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나기도 한다. 어른과 그 자녀들 또는 친척의 자녀들 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청년과 그의 형제들 또는 사촌들 간에 더 자주 일어난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신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때로 TCK 들은 집안 어른들은 모두 이모나 삼촌으로 불리우는 밀착된 가부장적 공동체 안에서 살기도 한다. TCK 들과 이런 소위 “가족” 간에 성관계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수치심과 비밀의 역학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근친 상간에 대해 성경에 많은 구절은 없지만 레위기 18 장 20 장에 나오는 구절들은 아주 구체적이다. 성관계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모든 친척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롯은 자신의 TCK 딸들과 성관계를 가진 TCK 의 예가 되었다. 그의 딸들은 당시 십대였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아직 처녀였고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소돔이 망할 때 그들의 약혼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 집안을 이어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술은 오늘날에도 범죄와 연관이 있지만 롯의 경우도 그랬다. 어느날 밤 취해서 큰 딸과 자고 다음 날 또 취해서 작은 딸과 잤다. 두 딸은 다 아버지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 (창세기 19). 큰 딸이 그의 아들을 “아버지에게서”란 뜻의 모압이라 부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롯은 그 자신이 소돔사람들에게 제안했던 일(딸과의 성관계)을 스스로 실행한 사람이 되었다.

## 그럼 TCK 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can adolescent TCKs do?

결혼전에 애무행위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할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청년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백년 전만해도 결혼이 미리 준비되어 십대가 되면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적으로 성숙해도 결혼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장에서 논의된 일들에 대해 몇가지 제안이 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성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애무행위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제안을 심사숙고해 보라

-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이미 데이트를 시작했다면 즉시) 신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음적인 크리스찬 어른과 의논하라. 부모나 목회자, 선생님 또는 학교 상담사등 자신이 신뢰하는 어른을 선택하라
- 만일 얼마 지나서 그 한계선을 바꾸고 싶을 때 가능하면 동일한 사람에게 그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 의논하라. 다른 한계로 바꿔줄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찾지 말라.
- 만일 어떤 사람과 데이트나 행아웃을 정기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초기에 어느 선까지 가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라.

-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있도록 허용할 나의 신체 부위와 내가 손 댈 수 있는 그들의 신체 부위를 글로 적으라. 생각이 맑을 때 이 결론에 이르도록 하라.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뇌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 그 사람에게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배우라, 윙크라든지 눈썹을 치켜뜨는 것, 독특한 미소 또는 독특한 몸짓등
- 집이나 차 안, 등산 등 둘만 있는 일을 피하라
- 여럿이 함께 “행아웃” 하거나 “더블 데이트”를 하라
-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함께 계획해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말한 “다른 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일반적으로 통하는 제안들을 글로 써 줄 방법은 없다. 몸짓, 옷차림, 행동습관 등 문화마다 다른 것들은 어떤 문화 안에서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묘사한 몇 가지는 2005 년 봄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옳고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쯤에는 완전 다를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직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처한 구체적인 장소, 시간, 문화 안에 살고 있는 “멘토”나 “조언자(advisor)”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지 문화를 가든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든지 진리다. 그 사람은 당신이 그 문화권으로 진입하기 전에 당신에게 경고를 해 주어야 하고 그 문화 안에 있을 때 지켜봐 줘야 한다. 아무도 성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한번에 다 생각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들이 보고 지적해줄 수 있다.

성경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쉬운 답은 “하지말라”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몇가지 제안이 결혼 전에 성관계 갖는 것에 “노(No)”라고 말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무의 한계를 정하라. 애무도 없이 바로 성관계로 가는 사람은 보통 없다. 서로를 애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섹스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한계를 정해 놓고 섹스의 결과로 치닫지 않도록 하라.
- 혼전 순결을 지키기로 스스로 작정하라. 많은 청년들이 혼전 순결식에 참여하거나 핀이나 반지를 끼고 이 결심을 기억한다.
-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키라. 혼전 섹스로부터 십대들을 보호하기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 헌신이다.
- 불신자와 데이트하지 말라. 교회 참석하는 어떤 청년들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지만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비율이 낮으므로 성관계에 대한 압력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 안전한 섹스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성병들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치료 가능하지만 어떤 것들은 사는 동안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은 치명적이다
-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당신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심리 상담사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비윤리적이다. 성행위를 갖는 것은 많은 것들을 바꾼다—영원히.

-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결혼할 거잖아,” 심지어 “약혼까지 했는데”와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말라. 헤더 제이미슨(Heather Jamison)은 1999 년 “*Focus on the Family*” 지에 글을 써서 장래 남편될 사람과의 혼전섹스가 어떻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말했다. 결혼 전에 다른 아무와도 성관계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 관해 의심하게 된 것이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두 사람이 서로 성적으로 잘 맞는지 알아보는 논리적인 방법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되진 않는다. 거듭된 연구에 의하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결혼 후 성적으로 덜 만족하며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부부들 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브로서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http://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 선교센터([www.anmcusa.org](http://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 선교센터에 있습니다.

